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부처님의 십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출중했던 목련존자의 모친은 이승에서의 삶이 덕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가 모친의 사후 세계가 궁금하여 관법으로 살펴보니, 어머니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며 아들인 목련존자에게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목련존자는 이런 상황을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하안거 해제일인 칠월 보름날에 대중에게 공양을 베풀고 일심으로 모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마침내 대중들의 일심 축원으로 목련존자의 모친은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이날이 바로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 또는 백중이라고 합니다. 법주사에서는 7번의 정성스러운 재를 올리면서 조상 천도를 위한 백중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백중천도재 봉행일정

- 입재 : 6월 25일 (음력 5월 27일) 토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함주스님
- 초재 : 7월 1일 (음력 6월 3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부주지스님
- 2재 : 7월 8일 (음력 6월 10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석담스님
- 3재 : 7월 15일 (음력 6월 17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장산스님
- 4재 : 7월 22일 (음력 6월 24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두진스님
- 5재 : 7월 29일 (음력 7월 1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주지스님
- 6재 : 8월 5일 (음력 7월 8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무상스님
- 회향 : 8월 12일 (음력 7월 15일) 금요일 법주사 대웅보전

■ **동참금** : 영가 1위당 20,000원 기도비 30,000원 (49일동안 영가등 밝혀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2|7

부처님 말씀 현명하게 살고 싶다면 / **이달의 법문** 執着을 내려놓아라 / **주지스님 법문** 허비 / **걸망메고** 사랑과 자비 / **수행여화**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다 / **감로의 글** 중생에 대한 관찰 / **법주사 소식** / **다도회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 **하안거 백일기도** / **관음전 백일기도** / **수능백일기도** / **칠월칠석기도**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우란분절 백중영가천도재**



현명하게 살고 싶다면

현명하게 살고 싶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하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

현명하게 살고 싶다면

항상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선행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고,

처자를 아끼고 자신의 일에 정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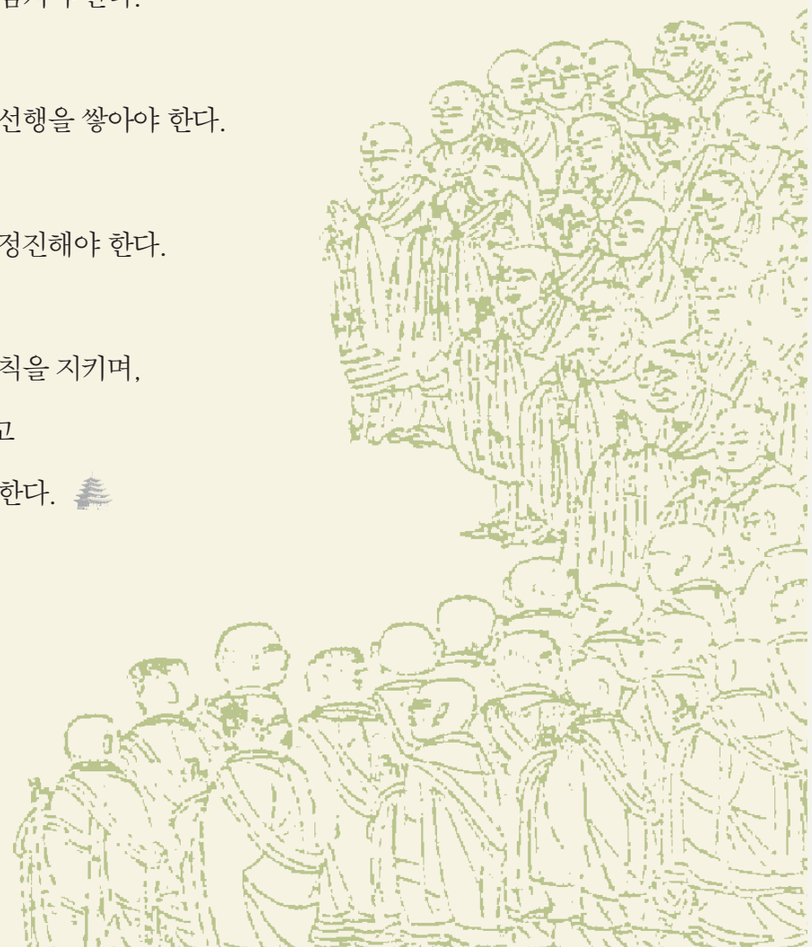
현명하게 살고 싶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원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 인덕을 베풀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대길상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2 7 | 통권 366호



2 부처님 말씀 현명하게 살고 싶다면

4 이달의 법문 執着을 내려놓아라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9 주지스님 법문 허비虛費 정도 스님

10 걸망메고 사랑과 자비 진정 스님

12 수행여화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다 현진 스님

16 감로의 글 중생에 대한 관찰 편집부

18 법주사 소식

19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20 하안거 백일기도

21 관음전 백일기도

22 수능백일기도 / 칠월칠석기도

23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4 우란분절 백중영가천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6(단기4355)년 7월호 통권 366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執着을 내려놓아라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隱密全眞을 當頭取證하고 涉流轉物을 直下承當하라.
向擊石火와 閃電光中에서 坐斷孝訛하며
於據虎頭하고 收虎尾處하되 壁立千仞하라.
則且置하고 放一線道를 還有爲人妻를 也無인가.

은밀하고 완전한 참모습을 단박에 깨닫고 눈앞에 흘러가는 모든 것에서 당처를 알아채야 한다.
전광석화 속에서도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호랑이 머리를 타고 꼬리를 잡아채며, 천길 벼랑에 우뚝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지는 그만두고 가느다란 길을 열어 수행자를 위해 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옛날 남전보원南泉普願화상 문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총림에서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절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동서 승당僧堂의 수행자들이
패를 갈라 고양이 잡는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든지 방장인 남전 스님 처소까지
소란스러운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상은 대중들 사이로 들어가 고양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도戒刀를 고양이 목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들아, 한마디 일러 보라. 온전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고양이를 살려 줄 것이요,
만일 일구一句도 이르지 못한다면 이 고양이를 이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그러나 동서 승당의 5백 명에 이르는 수행자들은 갑자기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듯한 사람도
일언반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전화상은 시퍼런 계도를 들어 고양이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도량에는 고양이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본 대중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이를 중심으로 대립하여 시비하며 떠들던 사람들은 더는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를 쓰고 다투던 일이 모두 허무하게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애꿎은 고양이만 죽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대중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던 고양이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 말은 고양이를 살릴 한마디를 이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주는 자기가 신고 있던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문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남전선사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그대가 있었다면 불쌍한 고양이는 목숨을 잃지 않았을 터인데 안타깝구나."
이를 두고 나중에 무문혜가無門慧開 스님은 〈무문관無門關〉에서 이렇게 조주를 칭찬했습니다.

趙州若在　조주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倒行此令　명령을 거꾸로 시행했겠지
奪却刀子　그 칼을 빼앗아 버렸다면
南泉乞命　남전도 목숨을 구걸했을걸.

이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많이 집착하고 사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선화禪話입니다.
세상의 시비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그것은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달이 뜨자 동네에 서 있는 큰 당산나무가 달빛에 비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를 본 그 동네의 어떤 개가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우니 도둑이 나타난 줄 알고
컹컹대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짖는 것을 보자 동네 개들이 모두 나와
무조건 따라서 컹컹 짖어 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문밖으로 나와 두리번거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란 따지고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대단한 진실이 있는 것처럼 집착하고 매달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시비를 합니다. 마치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를
도둑으로 알고 짖어대는 개와 같은 것이 시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세상살이입니다.
수행자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시비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남전 화상이 고양이 목을 친 것은 시비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서늘하게 보여 준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조주가 짚신을 머리에 이고 문밖으로 나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도 한 번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비의 근원을 뽑(拔去)는다고 해도
고양이도 목숨인데 그 목을 친 것은 또 다른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조주 화상은 '그런 시비는 동서 승당의 5백 승도와 그들을 이끄는 남전 화상 당신이나 하시오.
나는 관심 없소이다.' 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아예 구정물에는 발도 담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바로 조주 화상의 뛰어난 안목이 있습니다. 시비는 누구라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선 공부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최고의 공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주 선사는 나중에 학인들을 제 접할 때 늘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엄양嚴陽존자라는 사람이 조주 화상에게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놓아라(放下著)."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도로 가져가거라."
바로 이것입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물건도 가지지 않은 무소유라는 관념마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고통과 즐거움, 옳고 그름, 선과 악,
나와 남이라는 상대적 분별과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는 마음을 비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이면에는 그러니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마음을 비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살림이 한 물건도 얻은 바가 없는 무소득無所得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살펴서
그렇지 못하면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비워 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욕심이 됐든 분노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씩 비워 가야 시비에 얽혀들지 않게 됩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그곳에 큰 자유와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지스님 법문

허비虛費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헛되게 써버리는 것을 우리는 허비한다거나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평소 어떤 일을 하며 이득이 없어서 헛수고했다거나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허탈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의 결과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고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현재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해마다 법주사는 우란분절을 기해서
선망 부모 천도재를 49일 동안 봉행하고 있습니다.

제령한진치신망諸靈限盡致身亡하니
석화광음몽일장石火光陰夢一場이로다
삼혼묘묘귀하처三魂杳杳歸何處인가
칠백망망거원향七魄茫茫去遠鄕이로다
나무아미타불

모든 영가시여!
기한(목숨)이 다하여 몸을 잃었으니
번쩍이는 부싯돌 불같이 한바탕 꿈이로다.
삼혼은 고요히 어디로 돌아갔으며
칠백은 아득히 먼 곳으로 가버렸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우란분절에 영가님께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가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애틋한 마음은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불자가 가져야 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세속에서의 일반적 사랑이라 하면
애욕적인 사랑으로서 마음의 동요가 심합니다.
애욕은 불(火)과 같아서 열熱이 있어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머리 아픔과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적 사랑은
그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사랑하지만,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해 반해 불교의 사랑은 지혜에
바탕을 둔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의 성질은 서늘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물(水)과 같은 성질이라서
맑고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평온하고 마음의 동요가 없고
눈물이 없고 머리 아픔과 가슴 아픔이 없습니다.
자비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사랑과 연민이 충만합니다.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의 애욕은 친하고 친하지 않은 차별이 있어서
가깝고 친한 사람은 사랑하지만
멀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자비는 가깝고 먼 차별이 없이 평등한 사랑이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람입니다.



애욕은 연기緣起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일어납니다. 전생을 알지 못하고
윤회를 믿지 않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연으로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협하고 대상이 한정된 존재에 대해서만
사랑하는 것이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심하거나
증오합니다.
시간적인 연기로 보면 지구 상의 모든 인간이,
넓게는 모든 생명체가 무수한 전생에
나의 '부모 형제 부부 친구'였습니다.
자비는 이런 인과의 도리를 이해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일체의 존재를 평등하게
한계가 없이 사랑하고 연민하는 것입니다.
커피나무의 꽃말인 "너의 아픔까지도 사랑해"라는
뜻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대상이 아닌
영가님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 즉 자비의 마음으로
영가님을 위하는 천도재를 봉행하는 것이
불자의 참사랑입니다.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힘들어도 세월의 끝에 서서 보면 그 때가 꽃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불만이고 퉁명하여도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일 것이다.



나는 지금 이 글을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쓰고 있다.
해변으로 이어지는 골목에 자리 잡은 이 카페는
조용하고 아담해서 제주에 머무는 동안
자주 들리던 곳인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주인장에게 인사를 마쳤다.
매일 산책했던 동네의 골목길도
어느새 눈에 익숙해졌는데 내일이면 이곳을 떠난다.
내 사는 곳으로 돌아가더라도 한 동안은
여기의 바람소리와 맑은 하늘이 그리울 것 같다.
지난 한 달 기간 내내 느릿느릿 감상하며
제주의 풍경을 요망지게 즐겼다.
처음 올 때 약속했던 '3가지 원칙'에 충실하며
오롯한 나의 시간과 마주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았으며,
그 어떤 일에도 구속되지 않았다.
아주 느리게 살았던 시간들 덕분에
나의 충전게이지는 다시 정상이 되고 있다.
사람이 쉴 수 있는 때를 놓치면
'번 아웃' 현상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휴식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삶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일이다.
이곳에서의 즐거움은 스케줄 없는
하루를 맞이하는 일이었다.
때로는 하루 2만보 이상 목적 없이 걷기도 했으며,
버스를 타고 아무 곳이나 내려
기웃기웃하기도 했고, 배고프면
눈에 띄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카페가 보이면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딱히 정해진 일정이 없으니 선택하는 그 일이
그날의 목적이 되었다.
누가 나를 알아보는 이도 없고,
관심 두는 이가 없으니 매일 매일이
홀가분한 소풍이었다.
그러나 가장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은
아무 때나 바다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바람 불 때나 비가 내릴 때,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바다의 표정은 매일 달랐다.
그래서 매 번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지루하거나 심드렁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에는 구름 너머로 연출하는 노을이
아름다워 그 장면을 찍어 강원도 친구스님에게
보냈던 적도 있다. 그 친구는 낙조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감성을 지녔으므로
공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날 보았던 그 장엄한 풍경은
내 생애의 명작으로 기억될 것 같다.
이렇게 바다는 고독할 때마다 나의 벗이 되고
동무가 되어준 셈이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표현 같지만
그 속뜻은 좀 다르다.
외로움은 그 시간이 무료할 때 쓰는 표현이고,
고독은 그 시간을 즐길 때 쓰는 용어다.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만
고독은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
사람은 때때로 고독을 느끼며 살아야
철 들고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을 통해
침묵과 사유의 숲을 확장해야하는 존재인 것이다.
아무튼 나는 이곳에서 한 달 여행자가 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다. 돌아 갈 곳을 전제로 하는 여행은



휴식이 되고 추억이 될 수 있다.
아주 길 위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누구나 여행의 종점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을
감행하는지도 모른다. 여행이 목적지가 되면
그 길은 고단하고 쓸쓸하다.
어디까지나 여행지에서의 사연과 경험을
일상의 열정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 여행은 어떤 교훈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귀로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여행 중독자'가 되어 현실에 적응 못하고
방랑자가 되기 쉽다. 거듭 말하지만, 여행이
달콤하고 맛있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어서다.
그리고 여행은 내가 사는 그곳이
행복의 장소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기도 하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 시인이 발표했던 '꽃자리'라는 시 구절이다.
늘 탈출하고 싶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자리가 알고 보면 아름다운 꽃자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힘들어도 세월의
끝에 서서 보면 그 때가 꽃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불만이고
통명하여도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일 것이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꽃자리와 함께 하는
인연들이다. 결국 여행이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가 꽃자리였다는 것을 알아야
의미 있고 활력이 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제주에서 이 사실을 비로소 배웠다.
이제 이곳에서의 고독과 낭만의 시간들을
수행의 일상으로 돌아가 삶의 에너지로
적극 전환할 것이다.
여기 제주의 나무들과 더 친숙해졌다.
담팔수와 먼나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팽나무, 녹나무, 홍가시나무, 태산나무,
비파나무 등도 입에 익었다. 제주는 야자나무,
소철 등이 높게 자라고 있어서 이국적이고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수종들이 많아
늘 신비로운 곳이다. 나무와 꽃이 없었다면
이 곳이 얼마나 볼품없고 밋밋했을까…
그 어떤 인테리어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식물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곳에서 익명 생활자가 되어 지내는 일도
마음 편하고 가벼웠다.
어제는 우체국에 들러 집으로 짐을 보내고
〈표해록〉를 쓴 장한철을 기념하여 산책길로
정비해놓은 한담해변을 또 걸었다.
내 인생에서 이 길을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참 고마웠다.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애월의 교내리 마을…
이곳의 바람이 나를 다시 부를 때까지 안녕!

중생에 대한 관찰

법주사 편집부

문수보살이 유마힐에게 물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마힐이 대답했다.
"마술사가 만든 꼭두각시를 보듯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물속의 달을 보고,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봅니다. 또 한낮의 아지랑이, 메아리, 뜬구름,
물거품, 파초의 줄기, 번갯불과 같다고 봅니다. 또 보살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無色界에서 물질을 보듯이 중생을 보며, 불에 탄 낟알의 싹과 같이 중생을 봅니다.
시각장애인이 빛을 보듯이, 공중을 나는 새의 자취와 같이,
석녀石女가 낳은 아이와 같이, 꼭두각시가 일으키는 번뇌와 같이,
잠에서 깨어나 보는 꿈과 같이, 열반에 든 사람이 다시 몸을 받는 것과 같이
보살은 중생을 그렇게 봅니다."
문수보살이 다시 물었다.
"만약 중생을 그와 같이 관찰한다면,
보살은 어떻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유마힐이 대답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그와 같은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진실한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보살은 생멸하는 일이 없으므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비를 행하며,
번뇌가 없으므로 번뇌에 타지 않는 자비를 행하며, 과거 현재 미래가 평등하므로
평등한 자비를 행하며, 대립한 다툼이 없으므로 다툼이 없는 자비를 행합니다.
보살의 마음은 부서지지 않으므로 견고한 자비를 행하며,
모든 사물의 본성은 청정하므로 보살도 청정한 자비를 행하며,
보살의 마음은 허공처럼 끝이 없으므로 끝없는 자비를 행합니다.
또 보살은 번뇌의 도둑을 쫓아버리므로 아라한의 자비를 베풀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므로 보살의 자비를 베풀며, 존재의 실상을 알았으므로
여래의 자비를 베풀며, 중생을 깨닫게 하므로 부처의 자비를 베풀며, 인연 밖에서 깨달았으므로
자연 그대로의 자비를 베풀며, 평등하여 한 맛이기 때문에 보리의 자비를 베풀며,
온갖 애욕을 끊었으므로 일체를 초월한 자비를 베풀며, 대승(大乘)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므로
가엾이 여기는 자비를 베풀며, 공(空)과 무아(無我)를 깨달았으므로 권태를 모르는 자비를 행합니다.
주는 것을 아끼지 않으므로 설법으로 자비를 행하며, 계율을 범한 자를 교화하므로
계율을 지니는 것으로서 자비를 행하며, 나와 남을 함께 보살피므로 인욕으로써 자비를 행하며,
중생이란 짐을 지기 때문에 정진으로 자비를 행하며, 감각적인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선정禪定으로 자비를 행하며, 교화할 때를 잘 알므로 지혜로써 자비를 행합니다.
모든 것에 나타나므로 방편의 자비를 행하며, 진실한 마음은 청정하므로 떳떳한 자비를 행하며,
나쁜 행이 없으므로 깊은 마음의 자비를 행하며, 부처의 즐거움을 얻게 하므로 안락한 자비를 행합니다.
보살의 자비는 참으로 이와 같습니다."

《維摩經 觀衆生品》 중에서



6월 1일 천년의 향기 3차



6월 3일 단오



6월 4일 탄성대종사다례



6월 7일 금강사 주지 혜등스님 신임발령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2022. 7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6,3 신중기도회향 백중 초재	2 4 광명진언기도 어린이법회
3 5	4 6 다도반법회	5 7 합창단법회	6 8 약사재일	7 9 소서	8 10 백중 2재	9 11 어린이법회
10 12 월주대종사다례	11 13	12 14	13 15 보름	14 16 미륵재일철야기도	15 17 백중 3재	16 초복 18 다라니독송기도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법주회 법회
17 19 제헌절	18 20 다도반법회	19 21	20 22	21 23	22 24 백중 4재 관음재일	23 25 어린이법회 대서
24 26 31 3 신중기도회향	25 27	26 28 중복	27 29	28 30	29 7,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백중 5재 보현회 법회 칠석기도입재	30 2 어린이법회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30분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미륵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후 3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후 2시 3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하안거 백일기도

하안거 백일기도는 100일 동안 외부와 단절하고 오직 깨달음을 위해
수행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오직 수행과 기도로서
원력을 삼으시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을 이루고자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세속의 번잡함을 여의고
덕 높은 스님들의 수행과 기도의 원력을 받아서 소원성취 이루시길 발원 드립니다.

- **입　　재** : 불기 2566년 **5**월 **15**일(음 4월 15일) 일요일
- **회　　향** : 불기 2566년 **8**월 **12**일(음 7월 15일) 금요일
- **동 참 금** : **2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관음전 백일기도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관음보살을 모신
원통보전(관음전)에서 백일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인등기도 접수도 받습니다.



- **입　재** : 2566(2022)년 **7**월　**1**일(음 6월 3일)
- **회　향** : 2566(2022)년 **10**월 **8**일(음 9월 13일)
- **장　소** : 원통보전 (관음전)
- **동참금** : 인등 **7**만원 / 백일기도 **20**만원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0

수능백일기도



2023년 수능 100일기도가 봉행되오니
수능 및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불자님들은
합격의 원을 세우고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입　　재** : 불기 2566년　**8**월 **10**일(음력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불기 2566년 **11**월 **17**일(음력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칠월칠석기도



불교에서는 인연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법주사에서는 칠석을 맞아 신도님들의
인연성취 발원을 염원하는 기도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복된 선한 인연을 맺어나가시길 바랍니다.

- **입　　재** : 불기 2566년　**7**월 **29**일(음력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불기 2566년　**8**월　**4**일(음력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3**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7**월 **2**일(음 6월 4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2년 **7**월 **16**일(음 6월 18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